

제15차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 총회(CGRFA 15), '식량농업 유전자원 여러 하위분야들의 ABS 국내이행 촉진을 위한 요소(안)'에 합의 이뤄

2015년 1월 1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제15차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5일간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약 200여명의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및 농민 관련 기구, 국제농업연구센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산림·식물 유전자원, 식량농업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생물다양성 및 영양, 기후변화 및 식량농업유전자원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식량농업 유전자원의 여러 하위분야들을 위한 ABS 국내이행 촉진에 대한 요소(안)'이 합의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이 '요소(안)'에는 식량농업유전자원을 위한 ABS 조치의 개발·채택 또는 이행에 대한 고려사항, 국제적 법 체제에 대한 정보, 식량농업유전자원을 위한 ABS 조치의 마련 근거, 식량농업유전자원을 위한 조치 요소들이 포함되어있다.

자바드 모자파리 하쉬진(Javad Mazafari Hashjin) 'ABS 기술 법 전문가 팀' 의장은 ABS 전문가 팀의 그동안 성과를 발표하는 한편 (CGRFA-15/15/Inf.11, CGRFA-15/15/Inf.12), ABS 전문가 팀이 '식량농업 유전자원의 여러 하위분야들을 위한 ABS 국내이행 촉진에 대한 요소(안)'에 합의했음을 강조하였다. CGRFA 사무국은 해당 요소(안)과 FAO 총회에 제출할 결의문(안)을 담은 CRFRA-15/15/5 와 기타 관련 정보문서들(CGRFA-15/15/Inf.13, Inf.13/Add.1, Inf14)을 발표했다.

ABS와 관련하여 CGRFA 15에서는 주로 요소(안) 텍스트에 관한 논의, ABS 전문가 팀의 향후 업무, 요소(안)을 FAO Council에 주목시키기 위해 '결의문(안)'을 이용할 지, CGRFA 15 보고서의 '요소(안)'을 환영할 지의 여부를 다루어졌다. 이에 대해 중남미그룹(GRULAAC)은 "요소(안)을 '채택'하기보다는 '환영'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EU는

국가들이 요소(안) 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함을 제안하였으며, 아프리카는 요소(안)의 추가 검토를 지지하였다. 일본은 ABS 요구조건의 소급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요소(안)은 다른 생물 자원이나 원자재가 아닌 오직 유전자원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은 ABS 조치들이 식량농업유전자원 고려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기술적 도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아프리카 및 부탄은 개도국들의 ABS 이행을 돕기 위한 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커뮤니티 권익을 위한 동남아시아지역 이니셔티브’(The Southeast-Asia Regional Initiative for Community Empowerment, SEARICE)는 농부들의 권리와 농부들의 식량농업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에 기여한 역할을 강조했다.

아프리카 및 EU는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CGRFA)와 ‘식량농업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ITPGR),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간의 상호 지원적 업무를 요청하였다. 캐나다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을 위한 ABS가 ITPGR 이사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D는 CGRFA가 나고야의정서 ABS 정보공유체계에 ABS에 대한 그들의 관련 기준 및 관행들을 공유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비공식 협의들을 마친 이후 대표단들은 요소(안) 텍스트와 ABS 전문가 팀의 활동 재개에 합의했다.

캐나다, 아시아, 일본, EU는 요소(안)에 더 큰 가시성(visibility)과 인식을 주기 위해 결의문(안)의 채택을 지지했다. 캐나다는 “나고야의정서가 향후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제 ABS 문서들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히며, 캐나다를 포함한 이들 국가들은 결의문(안) 텍스트에 ITPGR 역할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프리카, GRULAC, 근동(Near East)지역은 “이 이슈는 아직 계속 논의 중인 것이므로 FAO 총회에 결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아직 이르며, 대신 CGRFA 15 보고서에 요소(안)을 환영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몇 차례의 비공식 협의회를 거친 이후 대표단

들은 앞으로 진행될 세부 하위분야들의 활동들을 FAO 총회에 알릴 수 있도록 이정표의 기능으로써 ABS 요소들을 CGRFA 15 보고서에 반영할 것에 동의했다.

제15차 총회에서는 요소(안)의 합의 외에도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전 다양성을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에 통합하기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CGRFA 사무국이 이를 UNFCCC 및 관련 국제 기구들에 제출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영양에 대한 국가·지역 활동 계획 프로그램에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기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을 위한 국가전략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하였다.

제15차 총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다음 총회인 '제16차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 총회'(CGFRA 16)는 2017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원문출처:

<http://biodiversity-l.iisd.org/news/cgrfa-finalizes-state-of-the-worlds-animal-genetic-resources-report-agrees-on-guidelines-on-abs-and-genetic-diversity-for-climate-adaptation/>

<http://www.iisd.ca/vol09/enb09650e.html>